



박소현의 섹.시.토크

점심이나 같이 먹고 여고동창인 두 친구가 만났다. a는 결혼 3년차, b는 결혼 6년차의 전업 주부들이다.

“응, 지금 막 먹을려고. 당신은 뭐 먹었어? 장어? 오늘밤에 힘 좀 써야겠네. 기대하고 있을게.”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b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아니나 다를까 건너 건너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아줌마 둘이서 b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소리를 죽여 키득키득했다.

“너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떡하니? 나까지 민망하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민망해. 우리 부부에게 이런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틀이만 있으면 얼마나 더 노골적인데.”

갑자기 a의 귀가 솔깃해진다.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골적인지 좀 해봐.”

“아니나. 좀 많이 조용한데 옮겨서 하자.”

점심을 먹고 옥상 정원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b의 입에서 말 그대로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당신 지금 뭐 입고 있어? 속옷 사진 찍어서 좀 보내.’ 이런 문자도 보내고, 밥 먹을 때 디저트 뭐 즐겨 하고 물으면 ‘당신 좀 먹자.’ 이런 소리도 하고...”

“남편 되게 점잖게 생겼는데 보기하고 다르구나.”

남편도 남편이지만 b도 만만치 않았다. 서로



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르는 것은 기분이 고 걸핏하면 ‘만지고, 빨고, 물어 뜯겠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상대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화내거나 빠지는 대신 거시기 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소리로 협박을 했다.

“생일선물 뭐 해 줄까?” “당신이 하루 입은 속옷!”

이 정도 되면 세미 변태급이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끔씩 야한 농담을 던지면 나는 듣기 싫다고 하던 수준이었는데,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남편 말을 따라하고 있더라구.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음담패설을 즐기게 된 거야.”

“부부가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음담패설은 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 음담패설

을 안 하면 누구랑 하니? 남자들끼리 하는 게 더 보기 싫지 않아요?”

“하긴 그렇긴 하지.”

“부부간의 성적인 표현은 편하고 노골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 애들 앞에서만 조심하면 되지 둘이 있을 때는 뭘 못하겠어.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야한 농담을 많이 하니가 결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

부인 “디저트 뭐 즐겨?” 남편 “당신 좀 먹자” 부부간 주고받는 야한 농담 스트레스 줄이고 섹스도 좋아져

같이. 덩달아 섹스도 좋아지고.”

그 덕분에 결혼 6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신혼 때와 잠자리 횟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이후, 여자의 이미지보다는 집안 일 하는 아내,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이미지가 커졌는데, 그렇게 남편에게 고착화되고 있는 이미지를 음담패설이 많이 상쇄시켜 주었다.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에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여자, 동물적으로 남편을 자극하는 여자였다.

“음담패설을 하는 것과 욕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 그 기준만 잘 지키면 돼.”

b의 말을 귀담아들은 a는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도 음담패설의 세계에 한번 뛰어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모르겠다. 평소 야한 말 하는 것도 싫어하는 a였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음담패설 사전이라도 찾아봐야 하나? 개인 과외라도 받아야 하나? 그리고 보니 고향의 친척할머니가 야한 농담을 잘 하셨는데, 오랜만에 전화라도 한번 넣어봐야 하나?

부부끼리 야한 말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그만큼 그들의 부부관계가 경직되어 있음을 a는 새삼 깨달았다.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연애칼럼니스트>

음담패설의 힘

리빙 센스

비빔국수 만들기

<재료 : 소면 200g, 열무김치, 오이, 김, 계란, 깨, 계란> <양념장 : 고추장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5큰술, 다진 마늘 0.5큰술>

①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소면을 3~4분 가량 삶은 후, 찬물에 헹구기 물기를 뺀다.

② 오이는 채 썰고, 계란을 삶아 툇다. 열무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③ 삶은 소면에 양념장을 넣고 비벼준다.

④ 비빔국수에 채썬 오이, 김가루, 삶은 계란을 얹고 깨를 뿌려준다.

⑤ 설탕을 조금 넣은 뒤 김가루를 뿌리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음 5월 10일 甲申)

36년생 상황은 어려움이지만 마음은 편하다. 48년생 외출을 삼가하고 면회도 조심. 60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72년생 모든 재물을 총 동원하면 해결. 84년생 지나간 일이 지만 다시 새겨보고 잘못된 곳은 찾아 사과. 행운의 숫자: 22, 27

37년생 병은 작을 때 잡아야 큰 병을 막는다. 49년생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61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라. 73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85년생 직장과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니 기대하라. 행운의 숫자: 02, 35

38년생 구설수에 오르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50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 62년생 돈 구를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74년생 큰 화는 없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행운의 숫자: 10, 26

39년생 쉼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반반이다. 5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지 진행을 늦추라. 63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75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 온다. 행운의 숫자: 04, 27

40년생 자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52년생 시비에 휘말리니 절대로 가지마라. 64년생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76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8, 45

41년생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예정은 새롭다. 53년생 가슴이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65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편안하다. 77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5, 33

42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54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긴다. 66년생 전쟁은 치열하나 군량미가 없는 형국이나 안타까울 뿐이다. 78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행운의 숫자: 13, 25

43년생 독불장군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55년생 어려움은 다행히 지혜는 샘솟는다. 67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79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천후를 살펴라. 행운의 숫자: 06, 26

44년생 능력을 발휘하니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56년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68년생 금의야행(錦衣夜行) 격이니 낮이 낮이 지는구나. 80년생 대량과 만다리에 이상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19, 37

45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한번 점검하라. 57년생 이리저리 참아도 못하는 형국이 빠진다. 69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83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상사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46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58년생 자신을 모함 고자질하는 수하인이 사람이 보인다. 70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82년생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하라. 행운의 숫자: 15, 40

47년생 다 된 밥에 제 뿌리는 열 사람을 조심하라. 59년생 한 시가 바쁘니 시간을 아껴 써라. 71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83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상사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촛불 문화제에 대한 실언으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던 방송인 정선희(사)씨가 출연 중인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사퇴하자 이번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서 구명운동이 펼쳐져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선희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정오의 희망곡'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와 관련 "나라 물건 챙겨서 자꾸 팔아넘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촛불집회를 해도 환경 오염시키고, 맨들 뚜껑 퍼가고..." 이런 사소한 것이 사실은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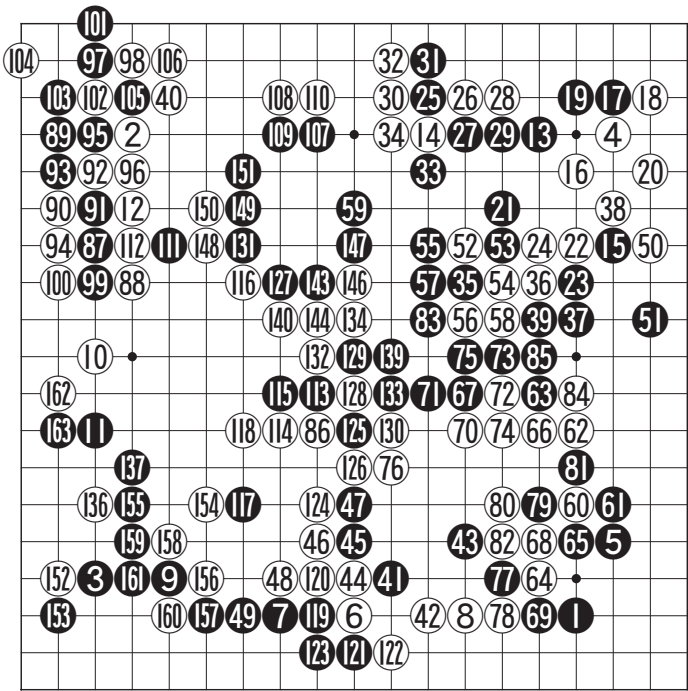
'촛불집회' 실언 정선희 프로그램 중단에 구명운동 논란

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다"며 "큰일 있으면 흥분하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누가 야냐?"라는 코멘트를 덧붙여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았다.

지난 8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20대 청년이 행인 7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살인'이 일본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자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사건 용의자 가토도 모히로(25)는 초·중학교 때까지 우등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고교 진학 이후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면서 심한 좌절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

은 이번 사건이 경쟁 지상주의에서 소외당한 젊은이들의 패배의식과 불안감이 키운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MC' 유재석(36)이 나경은(27) MBC 아나운서와 오는 7월6일 결혼하기로 밝힌 가운데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설이 제기돼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으며 텔러트 박태희(31)가 지난 11일 4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패기를 누른 노장의 관록

2회 1국 총보 (1~164)

白 김영수 5단 黑 백승열 5단 (전남교사회) (농협)

이 바둑은 백전노장인 김영수 5단과 직장대화에 첫선을 보인 백승열 5단의 대결로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전이었으나 백승열 5단이 너무 저돌적으로 패기를 앞세우다가 김영수 5단의 노련한 선방에 막혀 스스로 자멸해버린 한판이다.

백승열 5단은 초반 우상귀의 정식 과정에서부터 실리를 내주고 과감한 세력을 쌓는 패기만만한 작전을 들고 나왔으나 우하귀의 점전에서 66자리의 급소를 놓치고 흑 65로 두는 바람에 거꾸로 백 66을 당하여 공수가 역전되고 나서는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었다. 이것이 결국 환국이

되어 백 86까지 흑 다섯점이 크게 백의 수중에 떨어져서는 패색이 짙어졌다. 이후 백승열 5단은 흑 87로 좌상귀에 특공대를 투하해 역전을 노렸으나 이마저도 99에 두지않고 바로 93에 끊는 실수를 범하여 106까지 침투한 흑의 특공대가 모조리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서는 사실상 바둑은 끝나버렸다. 노장의 관록이 신예의 패기를 완벽하게 제압한 한판이다. 이것으로 김영수 5단은 우승고지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백 164 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혜연, 김중수 잡았다

조혜연 7단이 12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시니어 연승대회전 본선 14국에서 김중수 6단의 연승 행진을 저지했다. 231수 끝에 거둔 반집승이었다.

이로써 조혜연은 김중수에게 4연패를 당해 비랑 끝에 몰렸던 여류팀을 구해냈다. 하지만 조혜연의 승리에도 여류팀은 루이 9단, 박지은 9단 등 3명만이 남아있어 7명이 포진해 있는 시니어팀에 여전히 불리한 형국이다.

조혜연은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서승욱 9단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81>

How come? 도대체 왜 그래?

A: How come you still have that piece of junk? B: We are having trouble buying a car. A: How come? B: We just don't have enough for a down payment.

A: 어떻게 넌 아직도 그런 고물차를 굴리냐? B: 차를 살 형편이 아니거든. A: 왜 그래? B: 우린 아직도 계약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든.

* junk : 쓰레기, 고물차 * down payment : 계약금 * 그 사람 가게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어. = We are having trouble finding his store.

오하오우 니혼고 <1181>

つお建(た)てになったんですか。 언제 지으셨습니까

A: 立派(りっぱ)なお宅ですね。いつお建(た)てになったんですか。 B: 2年前なんです。さあ、どうぞお掛(か)けください。 A: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つまらない物(もの)ですが、どうぞ皆(みな)さんと召(め)し上(あ)がってください。

A: 훌륭한 저택이군요. 언제 지으셨습니까. B: 2년전입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A: 감사합니다. 이거 보잘 것 없습디만, 함께 드세요.

立派(りっぱ)だ: 훌륭하다. お宅(たく): 대. 召(め)し上(あ)がる: 드시다

니하오 쑹구위 <152>

你有兄弟姐妹吗? 당신은 형제가 있습니까?

A: 你有兄弟姐妹吗? Ni you xiongdijieshi mei ma? 너 유구 형제자매가 있어대이냐?

B: 我有兄弟姐妹。 Wo you xiongdijieshi mei. 워 유구 형제자매가 있어대이냐.

A: 你有几个兄弟姐妹? Ni you ji ge xiongdijieshi mei? 너 유구 몇 개 형제자매가 있어대이냐?

D: 我有一个弟弟和一个妹妹。 Wo you yige didi he yige meimei. 워 유구 유구 형제자매가 있어대이냐.

A: 형제를 몇 개 있습니까? B: 형제가 없습니다. A: 형제가 몇 명 있습니까? B: 남동생 한명과 여동생 한명이 있습니다.

兄弟姐妹 [xiōngdìjīshìmèi] 형제자매. 一个 [yige] [양식]하나. 弟弟 [dìdì] 남동생. 妹妹 [mèimèi] 여동생.

한자 이야기 <798>

反求諸己(반구저기) 돌이킬 반, 구할 구, 어조사 저, 몸기

반구저기(反求諸己)는 '돌이켜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잘못하였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반성(反省)하여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개선한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이런 '반구저기'의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구별하였다.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구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는 것이다.(論語, 衛靈公) 또, 맹자도 '인(仁)'을 실천한 활 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활 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은 뒤 활을 쏘지만, 비록 과녁을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 자기에게서 원인을 구할 따름이라고 하였다.(孟子, 公孫丑上)

이처럼 옛 선현들이 가슴깊이 새겼던 이 '반구저기'는 우(禹) 임금의 아들 백계(伯啓)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우임금이 하(夏)나라를 다스릴 때, 제후인 유호씨(有扈氏)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 백계(伯啓)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백계는 참패한 원인으로 자신의 덕행이 부족함을 반성하고 1년 동안 분발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유호씨도 백계에 감복하여 귀순하였다고 한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